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3. 2. 17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 럽

- 英 전문가, 이슬람주의에 초점 맞춘 대테러 전략 강조
 - 2.8 英 대테러 프로그램 'Prevent'의 검토자로 임명된 「윌리엄 쇼크로스」는 정부 대테러 정책이 우익 극단주의에 치중된 사이 이슬람주의 위협이 증가(최근 4년간 6건 테러 발생)하고 있다고 분석
 - * 내무장관은 향후 이슬람 극단주의자 테러 위협에 재초점을 맞출 것 강조
- 튀르키예, 지진 대응을 틈타 테러 위협 증가 우려
 - 2.9 이스탄불 위스퀴다르大 정치학 교수 「하문」은 인터뷰를 통해 지난 2.6 발생한 지진 복구에 튀르키예 국력이 집중되는 사이 ISIS 등 극단주의 테러단체에 의한 테러 위협이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
 - * 2.7에는 시리아 라조 교도소에서 ISIS 조직원들이 폭동을 일으킨 뒤 20여명 탈출

미 주

- 美, 대학에서 총기 난사로 8명 사상
 - 2.13 언론은 미시간주립대에서 흑인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재학생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했으며, 용의자 「맥래」(43)는 경찰과 대치 중 자살했다고 보도
 - * 「바이든」 대통령은 애도 성명을 내고, 의회에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
- 콜롬비아, 민족해방군(ELN)*과 평화협상 재개
 - 2.13 언론은 콜롬비아 정부와 민족해방군(ELN)이 멕시코시티에서 평화협상을 재개했으며, 양측은 분쟁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받기 위해 휴전 합의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보도
 - * '64년 공산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결성 / 테러단체 지정 : 美('97.10), EU('04.4)

아 · 태평양

- 日검찰, 「아베」前 총리 암살범 7개월만에 ‘수사 종결’
 - 2.13 日검찰은 지난해 「아베」前 총리를 사제 총기로 암살한 피의자 「야마가미 데쓰야」(42세)에 대해 「무기제조법」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7개월 만에 수사를 종결, 현재 구체적인 재판 일정은 미정
- 육군, 군사시설 외부 민간 드론 비행정보 수집 추진
 - 2.10 언론은 육군이 오는 '30년 도입 예정인 '저고도 드론 지휘통제 체계'의 효과적 운용과 민간 드론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군사시설 외부 작전·훈련 관련 지역에서 민간 드론 비행정보 수집을 추진중이라고 보도
 - * 현재 드론 비행은 국토부 장관, 드론 촬영은 국방부 장관이 허가권을 전담함에 따라 드론 비행 관련 정보 접근에 군이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배경으로 작용

중 동

- 인권단체, ISIS 잔당들이 시리아 지진 틈타 75명 납치·살해
 - 2.13 시리아인권관측소는 지난 11~12일 중부 도시 팔미라에서 ISIS 잔당들이 지진을 틈타 여성·어린이 등 민간인 75명을 납치, 이들 중 11명은 살해되었으며 나머지 64명의 생사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언급
 - * ISIS 잔당(1만여명 추정)은 시리아·이라크 등지에서 산발적인 테러 감행

아프리카

- UN, '사하라 이남' 폭력적 극단주의 새 진앙으로 분석
 - 2.8 UNDP는 '아프리카 극단주의 여정' 題下의 보고서에서 지난 5년간 전세계적으로 테러에 의한 사망자 수가 감소했지만 '16년 이후 사하라 이남 테러가 크게 증가하며, 폭력적 극단주의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다고 분석
 - * UNDP(유엔개발계획)는 특히 이곳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보다 빈곤 같은 경제적 요인으로 폭력적 극단주의에 가담하고 있다고 진단

이라크 알카에다의 시아파 겨냥 연쇄 테러사건

- '13. 2. 17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북부 시아파 밀집지역인 사드르市에서 시아파를 겨냥한 연쇄 차량폭탄 테러가 발생, 37명이 사망하고 130여명 부상
 - 현지 경찰에 따르면 주차되어 있던 차량 3대가 몇분 간격을 두고 잇따라 폭발했으며,
 - 동부 외곽지역 카말리야지와 동북부 지역 후세이니야, 남서부 지역 아민에서도 차량 폭발이 일어났으나 인명피해는 未발생
- 다음날인 18일, 이라크內 알카에다 연계조직 이라크이슬람국가(ISI, 現 ISIS의 전신)는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발표
- 이라크에서는 '06 ~ '07년을 정점으로 테러 사건이 감소하는 추세였으나, '11년말 미군 철수 이후 테러정세 불안이 심화
 - 특히, 수니파 주민들은 '12.12.23.부터 매주 금요일 예배를 마친 뒤 시아파 「알 말리키」총리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를 진행하였으며,
 - '13년 들어서는 양대 종파 갈등 심화로 테러와 폭력이 격화됨에 따라 사망자가 300여명에 육박하는 등 피해 속출

테러 상식

< 수니파와 시아파 >

- **(이슬람교)** 전세계 이슬람교도는 약 16억~20억명으로 세계 2대 종교중 하나이며, 수니파와 시아파 양대 종파*로 구분
 - * 예언자 무함마드 死後, 이슬람 공동체 지도자(칼리프) 계승 문제로 분파
 - 수니파 : 공동체 합의로 칼리프를 선출
 - 시아파 : 무함마드의 혈연적 후손만을 칼리프로 인정하며 신성 부여
- **(갈등계기)** 661년 무함마드의 사위인 4대 칼리프 「알리」가 우마이야 가문에게 암살당하고 우마이야 세습체제로 이어가자, 「알리」의 아들 「후세인」이 저항하다 680년 이라크 카르발라 지역에서 참혹하게 살해되며 본격적인 갈등 시현
- **(세력분포)** 전체 이슬람교도 중 수니파 85%, 시아파 15% 수준이며, 수니파는 사우디·요르단·리비아·파키스탄·아프간 등, 시아파는 이란·이라크 등에서 우세
 - * ISIS·보코하람·알카에다 등은 과격 수니파 테러단체 / 헤즈볼라는 과격 시아파 테러단체